



허정무號 16강 '담금질'

선수단 25명 남아공 전훈...9일 잠비아와 첫 평가전

구자철·김보경 등 '젊은 피' 대거 합류 옥석 가리기

축구대표팀이 한국의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의 꿈을 다지기 위해 20여일에 이르는 담금질에 들어갔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전지훈련 장소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로 떠났다.

대표팀은 15일 까지 월드컵 기간 베이 스텀프카 차려질 루스텐버그에서 현지 적응을 겸한 세 차례 평가전을 갖고 스페인 말라가로 넘어가 25일까지 2차 전지를 진행하며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른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청용(볼턴)과 프랑스 무대에

서 뛰는 박주영(AS모나코) 등 유럽파들과 시즌이 진행 중이어서 합류하지 못한 채 국내 K-리그 21명과 일본 J-리그에서 뛰는 4명 등 총 25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전지훈련에 동행하는 선수들에게는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에 들어 허정무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하는 시험무대다.

특히 이번 전훈에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8강 진출에 앞장섰던 구자철(제주), 이승철(서울), 김보경(홍익대) 등 3총사와 지난해 K-리그 득점왕이었던 김민준(울산) 등 젊은 피들이 대거 합류해 태극마크를 노린다.

이들 외에 베테랑 공격수 노병준(포항)과 지난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브롬 생활을 접고 국내로 유턴했던 미드필더 김두현(수원)도 대표팀 복귀를 버린다.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체력 테스트를 거쳐 지난 3일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다시 모였던 선수들은 해발 1천250m에 있는 루스텐버그에서 고지 적응을 겸한 훈련을 하며 9일 잠비아와 첫 평가전을 치르고 남아공 현지 프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친선경기를 벌인다.

대표팀은 2차 전훈 장소인 스페인 말라가에서는 핀란드, 라트비아와 맞붙은 뒤 25일 귀국한다.

이어 대표팀은 오는 30일 목포 축구센터에서 모여 올해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2.6~13일·일본 도쿄)에 출전해 일본, 홍콩, 중국과 우승권을 다투고 A매치 대인인 3월3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위해 다시 모인다.



미국프로풋볼 하이스 워드(피츠버그 스틸러스)가 4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랜드사크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돌핀스의 이진 아오 밀 선수의 태클을 피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드, 정규시즌 1천167야드로 마감

미국프로풋볼(NFL)에서 뛰는 한국계 하이스 워드(33·피츠버그 스틸러스)가 1천 167야드로 정규 시즌을 마감했다.

와이드 리시버 워드는 4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랜드사크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8번 패스를 받아 61야드를 전진했다.

비록 터치다운을 찍진 못했지만 팀에서 두 번째로 긴 61야드를 전진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탤다.

워드는 올 시즌 피츠버그가 치른 16경기에 모두 출장해 95차례 패스를 받아 1천167야드를 달렸다. 터치다운도 6개를 기록했다.

작년(1천43야드)에 이어 2년 연속 특급 리시버의 자대인 1천 야드를 돌파하며 1998년 피츠버그에 입단한 후 통산 6번째 1천 야드 고지를 밟았다.

피츠버그는 1쿼터 산토니오 홈즈와 마이 크 윌러스가 터치다운을 찍는 등 초반부터 밀어붙이며 30-24로 승리, 정규 시즌 9승7패를 거뒀다.

맨유, 3부리그 팀에 충격패

박지성은 결장...FA컵 탈락

잉글랜드 프로축구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FA컵 64강에서 3부 리그 소속팀에 일격을 당했다.

맨유는 3일 밤(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리그1(3부 리그) 소속팀 유나이티드와 2009-2010 FA컵 3라운드(64강) 홈 경기에서 전반 19분 제비인 벡토드에게 내준 선제 득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0-1로 저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박지성(29)은 출전 선수 명단에서 아예 빠졌다. 웨인 루니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를 최전방에 세우고 가브리엘 오베르타과 대니 웰벡을 좌·우 미드필더로 배치한 맨유는 쉽게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했다.

후반 들어서는 라이언 깁스와 안토니오 발렌시아, 마이클 오언까지 차례로 투입하며 과상공세를 펼쳤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과 문전에서 집중력 부족이 겹치면서 결국 이변의 제물이 됐다.

재정난 등으로 2003-2004 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됐고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선수를 달리는 리그 유나이티드는 모처럼 대어를 낚으면서 대회 4라운드(32강)에 진출했다.

맨유와 달리 '디펜딩 챔피언' 첼시는 챔피언십(2부리그) 왓포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5-0 대승을 거뒀다. 기대주 다니엘 스테리지가 두 골, 플로랑 말루다와 프랭크 램페드가 각각 한 골을 넣었고 상대 자책골까지 엮어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다.

아스널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후반 아론 램지와 에두아르두의 연속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빛 때문에... 맨유 채권발행 검토

잉글랜드 축구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7억파운드(약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4일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재무 상태 개선과 관련, JP모건과 도이체방크가 조언하고 있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옵션 중 하나로 고수익 채권 발행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센데타임스는 맨유가 이렇게 끌어모은 자금으로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금융권에 따르면 맨유는 현재 은행과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에 7억 파운드를 빚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맨유는 운영 수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센데타임스는 전했다.

워건 조원희, 수원에 임대선수로 복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워건 애슬레틱에서 뛰던 조원희(27)가 친정팀인 K-리그 수원 삼성에 임대 선수로 복귀한다.

수원은 4일 "워건 구단과 조원희를 1년간 임대하는 데 합의했다"라며 "2010시즌 정규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하는 구단의 취약 포지션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단은 이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팀 내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장 기회를 잡지 못한 조원희가 경기력 유지 차원에서 수원에서 뛰는 것을 원했다"라며 "차별근 감독도 꾸준히 조원희의 복귀를 설득했다"라고 덧붙였다.

수원 관계자는 "조원희가 지금보다 좀 더 확실하고 꾸준하게 경기에 나설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워드는 올 시즌 피츠버그가 치른 16경기에 모두 출장해 95차례 패스를 받아 1천167야드를 달렸다. 터치다운도 6개를 기록했다.

작년(1천43야드)에 이어 2년 연속 특급 리시버의 자대인 1천 야드를 돌파하며 1998년 피츠버그에 입단한 후 통산 6번째 1천 야드 고지를 밟았다.

피츠버그는 1쿼터 산토니오 홈즈와 마이 크 윌러스가 터치다운을 찍는 등 초반부터 밀어붙이며 30-24로 승리, 정규 시즌 9승7패를 거뒀다.

육상대표팀 발대식 내일부터 합동훈련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한 해 앞두고 정진력을 새로 무장한 한국 육상국가대표팀이 2010년 한 단계 도약을 향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과 연맹 임원 30명, 트랙과 필드, 마라톤·경보 등 대표선수 100명과 대표 코치 13명 등 150명이 넘는 육상 인은 5일 오후 2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호텔에서 발대식을 열고 6일부터 시작할 합동훈련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11월 열릴 광주아시안게임과 2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런던 올림픽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연맹은 사상 처음으로 종목별 뛰어난 합동훈련을 계획했다.

선수·코치 등 150여명 계게임 등 체계적 준비

장재근 트랙 기술위원장이 이끄는 단거리, 중거리, 허들 대표팀 33명은 6일부터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한다. 문봉기 총감독이 지휘하는 도약과 투척 종목 선수들은 목포축구센터와 유달 경기장 등에서 몸을 풀고 장대높이뛰기 선수들은 새로운 메카 부산에서 겨울을 난다.

마라톤과 경보 선수들은 황영조 마라톤 기술위원장과 폴란드 출신 보단 브라코우스키 코치의 지도로 다음달 28일까지 제주도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선수들은 물론 지도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포상 정책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친 연맹은 이번 합동 훈련을 앞두고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에 역점을 뒀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기록을 향상시키려는 태도를 갖추라는 주문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세민금·편선·고시포·적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편선부지 300평(전) - 평당 80만원
- 470평(당)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분할가능)
- 적포 바닷가, 편선, 모텔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전,모텔,1동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당)
- 500평 - 평당 60만원(부인양담,주택1동 포함)
- 1200평(전)-평당 35만원 (2-300평 분할가능) - 투자물건 디펜티브중(소액부터 다액까지)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편선 투자지, 광주지역 원목부지의 집값 급등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글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초 방조제 개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중개

• 상가/모텔 투자 물건(지상 5층) 완도를, 중심 상권내 대지 80, 건평 320평 매매가 10억 보증금 4,000만원 월 매출 1,230만 이상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임공인중개사

상담전화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육인식 및 장소

- 2010.01.21(목) ~ 2010.01.26(화) / (총 60시간 강연)
- 광주대학교 규기관 3층 305호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공중개사(개발업 3년 총사건출사, 건설기술사·고급·특급,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양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업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중 개발 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 67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시전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외/전/화 www.gre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사무국 김명철 082)233-3119
- 부원장 김동욱 변호사 062)233-3119
- 062)233-3117

해령 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대표성 불규 (연한등록번호 10-07-289)

전 조판사(고) 황영대(법원) 원부동산 전문인력 교육원장 (7기 사단법인 광주대학교) 관행대표 전 경실련 대표위원장 전 서울대법원서기 자원봉사원

전 대안공인(15기)사법원의 광주지부(부) 전 한국공인(2기)사법원의 이사 전 355-81지구 연세대학교(20)소법원 33대법관 전 서울대법원서기 자원봉사원 전 355-81지구 지대부(재)재

지역	소재지	토/건(㎡)	건평(㎡)	최대가	비고
군민주택 (광주·전남 지역)	광주	384/1028	595㎡	9억1천	11회 입찰
	광주	580/1812	1999㎡	11억1천	11회 입찰
	광주	580/1812	1999㎡	11억1천	11회 입찰
	광주	580/1812	1999㎡	11억1천	11회 입찰
군민주택 (광주·전남 지역)	광주	384/1028	595㎡	9억1천	11회 입찰
	광주	580/1812	1999㎡	11억1천	11회 입찰
	광주	580/1812	1999㎡	11억1천	11회 입찰
	광주	580/1812	1999㎡	11억1천	11회 입찰